데스크 시각

베니스에는 없고 광주에는 있는 것

박 진 현
문화·예향 담당 국장

지난 5월 말, 베니스 비엔날레로 향하는 여정은 녹록치 않았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헬싱키를 경유해 베니스 마르코 폴로 공항에 도착해야 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물의 도시'인 베니스 본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수상버스로 갈아타고 1시간 남짓 더 가야 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선착장으로 걷다 보니, 문득 오래전 일본의 나오시마(直島)지추미술관을 가기 위해 배를 탔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때의 '고생길'과는 차원이 달랐다. 인천에서 출발해 베니스에 도착하기까지 장장 20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20시간의 여정이 행복한 이유

최종 목적지인 아르세날레 역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을 맞은 건 베니스 비엔날레의 티켓부스였다. 붉은 색 바탕에 'Biennale Arte 2024'라는 흰색 글자가 쓰인 4개의 부스앞은 티켓을 구입하려는 관광객 행렬로 북적였다. 주전시장인 용봉동 비엔날레관에서만 티켓을 판매하는 광주와는 다른 풍경이었다. 성인기준 입장료 30 유로(4만5000원)의 만만치 않은 가격에도 티켓은 불티나게 팔렸다.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4월20일~11월24일)는 말 그대로 명불허전이었다. 창설 129년을 맞은 최고(最古)의 비엔날레 다운 세계 최고(最高)의 면모를 체감할 수 있었다. '어디에나 이방인은 있다'(Foreigners Everywhere)라는 주제로 지아르디니 공원과 아르세날레에서 열리고 있는 본전시는 서구 중심의 미술지형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들이 뿜어내는 도발적인 메시지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개막 전후 전 세계에서 수천 여 명의 저널리스트들이 '이슈메이커'의 진원지를 보기 위해 베니스를 찾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베니스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건 국가관(National Pavilions)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300여 개의 비엔날레 가운데 베니스만의 차별화된 콘셉트인 국가관은 한국을 비롯해 88개국이 지아르디니와 아르세날레에서 자국의 예술적 역량을 뽐낸다. 베니스가 자체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본전시와 달리 버버리, 샤넬,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병행전시다. 각국의 자존심이 달린 만큼 전시관의 스케일이나 퀄리티는 본전시와 우열을 가르기 힘들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미술올림픽으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인상적인 건 도시와 비엔날레의 환상적인 콜라보다. 베니스에 발을 내딛는 선착장에서부터 카페, 레스토랑, 호텔, 관광지 등 여기저기에 내걸린 비엔날레 현수막과 조형물, 다양한 이벤트들은 수상도시를 축제의 장으로 물들인다. 유동인구가 몰리는 목좋은 곳에 자리한 홍보부스 등은 베니스 인근의 명소를 찾은 관광객들을 비엔날레로 끌어 들이는 효과를 톡톡히 한다.

현대미술의 보고(寶庫)인 페기 구겐하임미술관과의 시너지는 가히 압도적이다. 특히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는 한해 평균 50만 여 명이 다녀가는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과 연계해 전설적인 컬렉터 페기 구겐하임(1898~1979)의 화려한 소장품과 에드가 드가, 에두아르 마네, 빈센트 반 고흐, 피카소 등을 수집한 아트 딜러 저스틴 탄호이저(Justin K.Thannhauser)의 컬렉션을 유치해 '비엔날레 특수'를 누리고 있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내건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995년 국내 최초로 국제미술축제를 표방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우리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소리풍경'(Soundscape)으로 국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의 국가관을 차용해 도심 곳곳에 31개를 설치하는 승부수도 띄웠다. 하지만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베니스와 달리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 지리적 여건상 비엔날레의 열기를 용봉동 전시관이 아닌 도시 전역에 퍼뜨리는 전략이 통할 지 궁금하다.

30살 맞은 광주비엔날레, 미래는

광주비엔날레는 30년의 세월이 말해주듯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이다. 제1회 대회에 무려 160만 여 명이 다녀가는 신드롬을 일으켰지만 갈수록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국제 미술지형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창설 30주년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미술축전 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2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니스가 해를 거듭할 수록 퀄리티 높은 전시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부동의 지존(至尊)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15회 대회는 비엔날레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의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선진 비엔날레인 베니스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될 우려가 있다. 비엔날레를 지역의 미술·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는 전략 역시 관행을 답습한다면 특수는커녕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광주의, 광주만의 차별화된 '비엔날레 마케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이젠 베니스에는 없지만 광주에는 있는, 뭔가를 찾아야 할 때다.

은펜칼럼

민주당과 호남의 '가치동맹'과 이해 상충점

최 영 태
전남대 명예교수

호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거점이다. 호남과 민주당의 특별한 관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제일 야당인 신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양자의 관계는 1980년 5·18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더욱 굳건해졌다. 민주당과 호남은 40년 이상 동안 민주주의, 지역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몇 가지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매개로 굳건한 '가치동맹'을 맺었고, 이를 통해 한국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만사가 그러하듯 호남과 민주당의 밀월관계가 항상 빛을 발휘하는 것만은 아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할까. 양자의 과도한 밀월관계가 때로는 호남과 민주당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양자의 밀월관계는 영남 보수층의 경계심을 자극하여 보수 정당에 반사이익을 안겨주곤 했다. 다른 한편으로 호남은 민주당을 지지한 대가로 보수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찬밥신세가 되고 지역 발전을 방해받았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호남이나 민주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불행했던 한국 정치사 혹은 잘못된 지역주의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부정적 결과 중에는 남의 탓이 아닌, 우리가 자초한 것도 없지 않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형적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모두가 민주당 출신인 상황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담당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마저도 민주당 일색인 것은 정상적 모습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민주당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일반 유권자들은 민주당 시·도 의원과 시·군·구 의원 후보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천되는지 알 수가 없다. 호남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는 투표 날 민주당 후보에게 단순 인준 투표 혹은 '묻지 마 투표'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심지어 시·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단독 후보만 출마하여 선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2년 전 지자체 선거 때 광주지역 투표율이 37%로 전국 꼴찌였던 것은 민주당 독식 혹은 요식 행위 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무관심 혹은 항의 표시의 반증이었다.

지난 3일과 4일 발표된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북·광주·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각각 20%, 25%, 23%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일반 유권자의 무관심을 넘어서 민주당 소수 열성 당원들의 행사로 그치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구나 소위 '개딸'들을 중심으로 소수 강성파가 너무 요란을 피우며 민주당 그리고 호남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한다.

광주에서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열렸던 지난 4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결과도 발표되었다. 양부남 국회의원과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대결한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양부남 의원이 큰 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선거 과정은 매우 치열했다. 양부남 후보나 강위원 후보 모두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두 후보 모두 당원 중심의 시당 운영을 공약했다. 특히 강위원 후보는 지자체 선거 때 시·구 의원 등의 공천권을 국회의원에서 당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시당위원장 후보의 혁신과 당원 중심 시당 운영이라는 공약은 일반 유권자 대다수에게는 거부감이나 공허한 용어로 비쳤다. 당원 중심이라는 용어는 공천권 행사 등에서 일반 유권자의 권리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호남과 맺은 소중한 역사를 계속 지속하려면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려야 한다. 특히 호남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민주당에 호남지역 지자체 선거 때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비율에서 일반 유권자 대 당원의 비중을 50% 대 50%에서 70~60% 대 30~40%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 경선 때도 일반 유권자의 평가가 반영될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제3당 후보에게 양보하여 민주당 독식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노력을 주문한다. 이렇게 일정 부분 양보도 하면서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민주당이 호남 유권자의 사랑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파리올림픽 양궁 쾌거는 민족의 유산

양 홍
목사·시인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딸들이 연일 대기록을 달성중이다. 양궁에서 여자 단체 10연승, 남자 단체에서 3연승을 해냈다. 장하고 자랑스럽다. 이 기록은 좀처럼 깨지지 아니하리라고 믿는다.

본래 우리 한국인들은 활 잘 쏘는 민족이다. 고주몽, 왕건, 이성계 그리고 유명한 명장들을 보면 신출귀몰한 활 재주가 있었다. 이 활 재주는 지금까지도 유전이 되어 올림픽에서 양궁을 가장 안전한 메달 효자 종목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유산이 아니겠는가.

사실 옛 역사에 있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총체적 혹은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살아왔다. 태고 시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이(夷)자로 써 왔다. 활을 잘 만들고 잘 쏘는 민족이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실제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자전인 '설문해자' 책에 이(夷)자는 큰 대(大)자에 활 궁(弓)을 합친 글자로 '큰 활을 가진 사람, 또는 활 잘 쏘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쓰여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이(夷)자를 처음부터 오랑캐를 뜻하는 말로 사용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후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낮추기 위해 이(夷) 자를 '오랑캐 이(夷)'라고 바꾸어 불렀다고 한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깔아뭉개기 위한 수단으로 나중에 바꾸어 쓴 것이다.

중국 사람들을 보자. 주변 민족을 부를 때 거의 다 짐승이나 벌레 충(蟲)자를 붙여 부르지 않았는가.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은 감히 그렇게 쓰지 못했었다.

서울대 인문학장을 역임한 한영우 교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공자가 사실은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논어에 나온다. 춘추시대 오패들을 찾아다닌 공자는 자신의 철학을 받아 정치에 반영해 달라고 연설을 하고 다녔다. 제자들을 이끌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순력하면서 자신의 도를 폈는데, 호응은커녕 오히려 '정신나간 영감'이라고 외면당했다.

하기야 그럴 것이 국력을 키워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군사를 키우고 영토를 넓혀서 요즘 말로 경제성장·군사대국을 도모하려는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나라가 작더라도 도덕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니니 제후들이 볼 때 '정신나간 영감', '미친 영감'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 한국에 이민 가서 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하루는 제자들 앞에서 뗏목을 타고 서해를 건너가 구이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니 한 제자가 '구이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누추하지 않겠습니까?'하고 묻자 공자 왈 '아니다. 그 곳에 가면 군자들이 살고 있다. 따라서 누추하지 아니 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구이(九夷)는 바로 '조선'으로, 한서지리지에서 유권해석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자국이 된 것이다. 군자국이란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말한다.

양궁! 감히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볼 것인가? 모든 참가 선수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社 說

'껌값' 쌀값에 무너진 농심 그대로 둘 건가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최근 80㎏들이 한 가마 가격이 14개월만에 17만 원대로 하락한 이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인 쌀값 추이라면 수확기(10~12월)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5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는데 올해는 오히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농협 RPC 등의 재고 물량이 10만4000 t 으로 전년보다 81%나 많은 상태인데 햅쌀이 나오는 이달 중순 이후 재고 쌀을 덜어내려는 RPC측의 저가 방출 가능성도 크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소비량 감소 탓이 가장 크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인당 돼지·소·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60.6㎏)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라는 것은 옛 말이 된지 오래다. 쌀 소비 급감으로 농도인 전남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쌀 소비 감소에 대비해 재배면적을 꾸준히 줄였지만 전남은 아직도 14만9878㏊에서 연간 74만여 t 을 생산해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전국 1위다.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줄어든 쌀 소비를 탓할 수만은 없다. 전남도를 비롯해 지역농협들은 자체적으로 쌀 소비 촉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농협만 하더라도 어제 쌀 소비촉진 통합지원단을 발족하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쌀 가공식품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쌀값 하락 대책을 지역과 농민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정부는 80㎏ 쌀 한 가마 가격을 20만 원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목표가격만 제시하고 손을 놓는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장격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쌀 소비에 한계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것이 있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이 있다. 인플레 시대, 껌값보다 못한 쌀값에 농심이 타들어 간다.

폭염 잊게하는 광주전남 태극전사들 활약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광주·전남 출신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들의 맹활약에 지역민들은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광주에만 15일째 이어진 열대야도 이겨내고 있다.

파리올림픽의 한국 선수단 규모는 22개 종목 262명으로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1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6일 현재 광주·전남 태극전사들은 금메달 2개를 포함해 6명이 모두 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선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지역 출신 태극전사들의 활약이 얼마나 눈부신지 알 수 있다.

순천시청 남수현은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더니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어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청의 최세빈과 화순군청의 정나은도 여자 사브르 단체전과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땄다.

지역 태극전사들의 활약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4일과 5일에 절정을 이뤘다. 화순출신 임애지는 4일 여자 54㎏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여자 복싱 최초'라는 역사를 썼다. 5일에는 장성 출신 조영재가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에서 은메달을 수확해 역시 속사권총에서 나온 한국 첫 메달이란 기록을 세웠다. 압권은 역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었다. 나주출신으로 광주체고를 졸업한 안세영은 28년만에 고국에 금메달을 안김으로써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을 모두 석권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지역출신 태극전사들의 메달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쿄올림픽 동메달로 근대 5종 한국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전웅태(광주시청)가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고 스포츠클라이밍의 신은철도 메달을 노린다. 지역출신 태극전사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폭염과 불황을 이겨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귀국하길 기원한다.

無 等 鼓

감자 vs 고구마

감자와 고구마는 시쳇말로 짜장과 짬뽕처럼 쌍으로 묶여 다니는 농작물이다. 식물 계보 상 이웃사촌 정도로 보여서인지 이름부터 혼용해 사용됐다. 지역에 따라 감자를 고구마로, 고구마가 감자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감자는 이 땅에 꽤 늦은 시기에 전해지다 보니, 문헌에는 19세기 이후에 등장한다. 한글로는 '감져'로 많이 표기되는데 한자어 '甘藷(감저)'에 뿌리를 두고 있다. '藷(저)'는 사탕수수나 마를 뜻하는데 이때는 단맛이 나는 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감자는 단맛이 그리 강하지 않으니 아무래도 본래 '감저'는 표준어의 고구마를 일컫는 말이다. 방언에서도 감자가 '감제'나 '무수감자', '북감자'로 나타나니 본래 감자는 고구마를 가리킨다.

알고 보면 감자와 고구마는 같은 서류(薯類·뿌리를 이용하는 식물)이지만 뿌리를 달리한다. 감자는 가지나 토마토와 같은 가짓과의 식물로 우리가 먹는 부위는 땅속에서 자라는 덩이줄기이다.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 티티카카호 주변 고원지대로 청나라를 통해 전해졌다. 반면 고구마는 메꽃과로 온대에서 열대지방까지 잘 자라는 특성을 지닌 덩이뿌리 작물이다. 열대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일본을 통해 전래했다.

감자와 고구마의 차이는 작물이 숙성하면서 나오는 싹이나 순의 쓰임새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감자의 싹에는 독성물질인 '솔라닌'이 있어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독성 화합물 때문인데 주성분이 솔라닌이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며 생기는 솔라닌은 특히 싹에 많이 들어 있다. 솔라닌은 30mg만 먹어도 복통, 구토,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이와 달리 고구마에 난 싹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구마 싹에는 독성 물질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먹으면 영양 섭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구마 싹은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고구마순(고구마 줄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요즘 고구마순 수확이 한창이다. 단순 비교로 농작물의 실효성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감자와 달리 덩이뿌리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까지 먹을 수 있는 고구마가 쓰임새 면에서는 앞서는 것이 분명하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